

國學으로서의 地理學：研究의 方向과 그 應用

邢 基 柱*

◀目 次▶

- | | |
|---------------------|-----------------------|
| 1. 韓國學과 國土認識 | (2) 韓國의 地理學 應用 |
| 2. 主體의 研究方法 | 4. 地方化時代의 地理學(反省과 提言) |
| (1) 辨證法的 妙合 | (1) 學界의 反省 |
| (2) 地誌의 接近 | (2) 當局에의 提言 |
| 3. 地理學의 應用 | (3) 教育界에의 提言 |
| (1) 應用地理 運動과 應用의 內容 | |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 간에 수세기의 역사를 앞당긴 것 만큼이나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 변화가 급속한 개발도상국 일수록 土着性에 대한 外來性的 influx가 심하여 무엇이 主體인가를 혼돈할 경우가 많은데, 地理學도 例外는 아니다. 新學問이 上陸한 이후 우리가 배우는 地理學 역시 西洋 사람들이 개발한 지식이고, 근자에 와서는 거의 西洋思潮 一邊倒의 이론과 방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따금 바람직한 地理教育에 대한 討論은 전개하여 왔으나 韓國地理를 연구하는 主體의 方法論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우리의 地理學이 當面한 문제로는 地誌의 方法의 소의문제, 北韓研究資料의 폐쇄성, 專門人力의 양성과 활용문제, 教育目的과 教育成果에 관한 문제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다.

發題者는 이들 諸問題들, 첫째 韓國學으로서 國土를 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둘째, 韓國의 國土를 診斷하고 處方하는 地理學 應用의 현황과 역할이 무엇이나, 셋째, 훌륭한 國土를 가꾸기 위한 教育은 무엇이나의 순서로 의견을 전개할까 한다. 결국, 이것은 國土라는 研究對象을 中心에 놓고 韓國의 地理學, 韓國的 地理學의 應用, 韓國的 地理學의 教育이 主題가 된다.

1. 韓國學과 國土認識

韓國學이란 우리나라 전통적인 經學·史學·語文學·佛敎學·考古學·地誌學·民俗學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종래의 中國經學에 의지하던 학문체계가 朝鮮時代 後期實學派에 의해 自我認識의 학문으로 啓發된 것을 말한다. 오늘에 와서는 西學에 의지하던 학문체계를 우리의 체계로 개발한 것이 韓國學이라 바꾸어 定義할 수도 있을 것이다.

開化期 이후 우리는 歐美의 學問을 많이 도입하여 왔다. 그것이 제대로 소개되고 消化되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狀況을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나 공헌을 하였느냐를 돌아켜 보아야 한다. 韓國的 狀況이나 韓國의 特殊性을 對象으로 하는 韓國的 方法論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요청은 이미 社會科學者들 사이에 널리 交感하고 있는 터이며, 해방후 40여년이면 外來學問이 自己 것으로 이미 再生産되어 있어야 할 세월이기 때문이다.

外製克服과 自我認識을 韓國學의 本質이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앞서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나 몸담고 있는 國土(또는 鄉土)의 올바른 認識을 韓國學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朝鮮時代 實學의 大業 중에서 李重煥, 丁茶山, 申景濬, 金正浩 등이 마련한 地誌와 地圖를 비롯해서 疆域·疆界·道路·山水 등에 관한 연구는 바로 國土認識을 위한 韓國學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옛날에 비해서 國土 자체가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認識의 次元 또한 옛날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國土空間의 構造는 “多様하고 특징있는 部分空間이 조합되어 全體의 統一性”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길서정연한 계층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며, 우리는 國土의 길서정연한 균형상태를 理想空間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각지방이 풍요한 개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有機的 統一的 均衡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地理學者란 國土의 현실이 이러한 理想과 어떤 乖離가 있는지 診斷하고 處方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볼 수 있겠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풍요한 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 낮은지역과 신개척지의 균형 自然界的 生態의 均衡 등 國土認識의 현대적 과제는 살기 좋은 均衡空間을 만들기 위해서 있으며, 韓國學 또한 이러한 當爲性에서 출발해야 옳다. 國土가 없는 國民도 存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체로 한 民族의 번영은 풍요한 國土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말에 “땅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따라서 땅으로서 다스림을 바르게 할지니, 땅이 고르고 조화로우면 다스림 또한 바르게 되느니라”고 하였다.(管子)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때 지금까지의 韓國學에서는 精神的 文化遺産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國土研究를 소홀히 하였고, 地理學 또한 韓國의 特殊性으로서의 國土, 韓國의 理想型으로서의 國土研究가 소홀하였으며, 研究方法 또한 韓國의 方法的 開發에 소홀한 느낌이 있다.

2. 主體的 研究方法

(1) 辯證法的 妙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鄉土, 또는 國土가 다른 나라의 鄉土나 國土와 본질을 달리하고 있

는 한, 이를 취급하는 方法 또한 우리의 價値觀이나 理念에 바탕을 둔 研究方法이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發題者는 이를 主體的 研究方法이라 과장의 표현을 하였으나 결국 文化的 特殊性이 인정되는 方法은 우리의 國土를 理解하는 地理學에서도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 했다.

어떤 학문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사람과 관계되는 문제를 취급할 경우에 오랜 爭點이 되어왔던 것은 普遍과 特殊, 價値와 事實, 理論과 實踐, 當爲와 存在 등의 兩分的 關係의 규명이었다.

地理學도 例外는 아니어서 일지기 法則追求(nomothetic approach)나 個性記述(idiographic approach)이냐가 오랜 爭點이 되어왔고, 근자에 와서는 場所의 意味나 人間의 내적인 경험과정에 중점을 두는 解釋學的 接近 또는 現象學的 接近, 그리고 價値의 實踐에 중점을 두는 急進主義的 接近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직은 地理學研究에 定着된 것이 아니므로 後者와 같은 動向을 곧 paradigm의 轉換이라고까지 性急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1950年代 中葉 이후부터 급속히 확대된 地理學의 理論主義的 熱風을 비롯해서 1970年代 이후의 解釋學的·急進主義的 熱風은 과연 地理學의 研究史에 過渡的 混亂期를 劃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過渡的 狀況에도 불구하고 近代地理學 成立 150餘年의 歷史는 法則追求나 個性記述이냐의 兩分的 爭點에 많은 熱을 쏟고 있다. 이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분개념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원의 爭點이 성립한다. 하나는 地理學의 科學性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方法論的 地域的, 文化的 特殊性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地理學이 實證科學이냐, 아니면 認識論이나 價値論을 주축으로 하는 特殊科學이냐 하는 논쟁은 철학적 과제이므로 쉽사리 合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地理的 現象이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綜合的 事象이므로 해서 어떤 現象은 實證的, 또 어떤 現象은 認識論的으로 分析·理解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研究史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地理學의 이론과 방법이 地域과 文化의 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이거나, 또는 보편성을 띠어야 하나 하는 문제도 위의 科學性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自然地理的 現象은 보편성을 띠는 것이 많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文化·歷史地理的 現象은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地理學을 비롯한 社會科學 全般의 研究動向을 보면, 역사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 추구를 제시하면서도 실제의 접근자세나 구체적인 이론의 내용을 보면 文化的 特殊性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았다. 가령, 제 3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과학에서는 민족·국가적 이념이 강조되고, 맑스주의 사회과학에서는 계급성 타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제가 개재된 學問에서는 이론의 超歷史性이 오랜 爭點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데, 普遍과 特殊는 각각 별개의 성질이 아니고 손의 안팎과 같아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 대립에서 cross-fertilization에 이르는 특성이 있다. 일찌기 地理學에서 宇宙—地域의 觀點의 統一을 강조하여온 이른바 Humboldt의 “調和的 統一體”는 法則追求와 個性記述의 二元的 대립을 調和된 方法으로 승화시킨 좋은 예에 속한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할 때, 地理學의 연구절차는 처음에 우리의 國土를 우리의 知的傳統 속에서 있는 그대로 認識하고, 이것을 國土의 理想型, 즉 Sollen의 세계에 觀照하되 나중에는 宇宙的, 普遍的 世界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正道인 것 같다. 이러한 作業이 反復되므로써 普遍과 特殊, 法則追求와 個性記述的 接近은 辦證法的 妙合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地誌의 接近

發題者가 처음부터 “韓國的”이라는 接頭詞를 즐겨 쓴 것은 곧 國土라는 特殊性, 즉 韓國의 特殊性을 韓國의 知的傳統 속에서 찾기 위한 뜻을 담은 것이요, “主體的으로 精鍊된 地誌의 方法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에 오랜 옛날부터 “地理”란 用語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뇌리에 있는 地理的知識은 開化期

이후 西洋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遺産에 지나지 않는다, 이따금, 地誌가 편찬된 일이 있었으나 西洋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면, 저들의 技法을 제대로 消化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官撰 地誌의 경우에는 政府의 業績을 P.R한 책자에 지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地理學의 潮流로 알려진 地人相關論, 景觀論, 地域論, 機能論, 立地論, 그리고 근자에 高潮되고 있는 地理學의 人本主義的 接近 등은 西洋 사람들의 思考를 정리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知的傳統을 體系化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祖上들의 地理學的 關心을 정리하고 이해한 다음에 西洋으로부터 導入된 地理學을 消化하여 接木시키므로써 辦證法的 만남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知的 기반과 接近의 姿勢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地誌調查를 행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때 注目되는 것은, ① 地域間的 연결성과 계층성, ② 地域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 상호간의 관계, ③ 現場의 경험적 지식, ④ 인간행위의 空間的 意味體系, 즉 土地에 투영된 인간의 태도, 신념 등 小宇宙 내지 小世界의 構成, ⑤ 土着과 外來의 현명한 구별 등이다. 특히, 요즈음 처럼 外來性的 influx가 심할 경우일수록 우리의 傳統的 價値體系를 깊게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地誌的 接近은 예술가와 같은 天才的 直觀力을 필요로 하며 現場에 대한 觀察力과 調查力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용이한 접근은 아니다.

3. 地理學의 應用

(1) 應用地理 運動과 應用의 內容

마치 경제학의 연구가 그 인식방법의 차이에 따라 경제원론, 경제사, 경제정책으로 3분 되듯이 地理學도 지리학원론, 地誌(地域地理), 應用地理로 3분할 수 있다. 이때, 應用地理學은 우리가 살고 있는 國土空間의 잘못된 秩序를 理想空間으로 바로 잡기 위한 手段 내지 政策을 追求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政策學의 범주에 넣을 수 있고, 이는 한편으로 地域秩序의 運動法則을

援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현실공간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理解해야 되므로 原論·地誌와 더불어 三角關係를 이루게 된다.

현실사회가 복잡할 수록 學問의 應用性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地理學은 1911년 Herbertson, A.J.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應用地理”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1930년대에는 Stamp, L.D.교수에 의한 영국의 土地利用調査(1930~1933)가 전시의 食糧증산을 위한 농업재편성을 가능케 하였고, 또한 11個 國防地域設定의 기초로 쓰이게 되었다. 戰後에는 Stamp의 大業이 都市計劃, New Town건설, 工業配置, 資源保全, 地域計劃 등 각종 地域政策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地理學 應用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1960년 8월, IGU 스톡홀름大會 때부터 地理學의 應用의 研究는 國際的 關心事가 되었는데, 이때 제 9분과에서는 미국의 Ackerman, E.A.교수, 벨기에의 Tulippe, O.C.교수를 비롯하여 地域科學의 창시자 Isard, W.교수 등에 의한 21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1968년 IGU 뉴우델리大會에서는 9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그 이후 應用地理에 관한 각종 研究所의 설치, 國際會議의 개최 등을 위해서 大學의 教科도 orthodox한 科目이 어느정도 배제되는 대신에 土地利用論, 立地論, 航空寫眞判讀, 地域計劃論, 資源論 등의 生소한 科目이 등장하게 된다.

1960년대 후반에 있어서 planning으로 學位를 수여하는 學科가 미국의 경우에 약 30여개소에 이르고 Isard, W.교수가 주축이 된 國際地域學會 會員이 이미 1967년에 1,500인을 넘어섰다. 地域學은 그야말로 學際間 協力を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政策參與가 높는데, 1967년 1,500인의 會員을 전공별로 보면 경제학이 43%, 지리학이 20%, 土木·建築學이 24%, 行政學이 7%, 其他領域 3%로서 이미 이때부터 地理學은 orthodox한 자리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스톡홀름大議에서 討論된 應用地理學의 주요 테마는 9개 부문이었으나 이를 크게 구분하면, ① 地形·土壤·植生·河川流域開發 등 自然環境問題, ② 農村聚落이나 農地構造 및 農業土地利用에 관한 農村問題, ③ 都市計劃問題, ④ 國

土計劃 내지 地域計劃에 관한 問題의 넷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 地理學者의 參與領域이 넓고,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都市計劃, 地域 및 國土計劃 분야인데, 그 理由는 이 분야가 “地域” 또는 “空間”이라는 綜合的 思考力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都市 및 地域調査의 經驗과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地理學의 應用은 연구목적에 따라 調查部門과 計劃部門으로 나눌 수 있고, 利用者에 따라 公共機關과 私企業으로 나눌 수 있으며, 地理學의 각 제통적 영역에 따라 地理學은 生態系保全, 農村計劃, 農水産業開發計劃, 人口計劃, 都市計劃, 資源配分計劃, 工業立地計劃, 流通計劃, 災害防止計劃 등에 동원될 수 있다.

이 밖에 航空寫眞의 利用과 地圖製作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최근에 軍事的 目的이나 國土開發에 활용되고 있는 遠隔探查技術의 전문인력도 地理學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地理學 應用의 불길은 學問의 實踐性을 중요시하는 소련, 폴란드를 위시한 社會主義 國家에서刮目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實用主義와 經驗主義 哲學이 國民生活의 기반이 되고 있는 美國과 英國에서 高潮되었다. 특히, 英美系의 實證主義的 思潮와 計量技法의 개발은 地理學의 應用에 理論의 뒷받침이 되어 地理學의 社會的 發言權을 높여줄 뿐 아니라 地理學의 他學問과의 對話領域을 넓혀주게 되었다. 專門領域의 細分化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50년대부터 英美系의 地理學은 재빨리 現實參與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특히 planner 양성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 같다.

(2) 韓國의 地理學 應用

우리나라에 大學의 地理學科가 創設된 것은 解放直後이며, 地理學會의 發足도 解放直後이다. 그러나 本格的으로 研究活動이 시작된 것은 學會誌 創刊의 1963년이요, 研究業績을 回顧하면서 將次의 方向을 모색한 大討論의 場이 1975년에야 있었으므로 우리의 研究史는 실로 日淺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터에 地理學의 應用까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1960년대의 地理學 應用에 관한 주요데마는

江原道の 山地利用, 智異山開發, 收復地區의 資源利用, 高冷地의 土地利用 등 山地利用의 연구가 주축이었고, 1960년대에 전국에서 발표된 應用地理學 관련논문은 총 40여편, 이 중에 地域開發 관계가 16편, 國土開發 관계가 7편, 土地利用 관계가 10편, 自然地理 應用 및 기타가 7편으로 集計된다.

1970년대에는 調查·計劃을 위한 機構가 官·民을 통해서 많아졌고, 이에 動員되는 地理學者의 수도 점차 늘어났다. 應用的 內容도 防災, mesh法에 의한 地形分類, 土地의 能力區分圖, 土地利用評價, 農村 및 都市計劃 등 多樣하고, 1970년대에 발표된 論文은 100여편에 육박한다.

1980년대에는 調查·計劃機構의 專門的 活動이 大型化하고,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을 비롯한 全國各地의 計劃者 養成機關(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출신의 활동이 두드러진 反面 地理學者의 현실참여는 상대적으로 萎縮된다. 그러나 이것은 理學學者의 應用參與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지 地理學應用的 위축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조사·계획기구나 計劃者 양성기관이 地理學의 計量的 技法이나 實證主義 理論을 기반으로 삼을 뿐 아니라 地域에 대한 綜合的 思考力이나 地域調查의 技法 및 地圖·航空寫眞의 活用技法 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실제적으로 더 많이 援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刮目된 應用地理의 題마는 環境汚染에 관한 것, 生態系保存에 관한 것, 都市再開發 및 工業配置에 관한 것, 간척지 개발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觀光分野에의 應用이 刮目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地理學技法을 有益하게 活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官·民의 調查·計劃 機構에서 활약하는 地理學者의 수는 極小數에 불과하다. 예를들면, 國土開發研究院 在職者 중에 地理學科 출신은 11명에 지나지 않고, 學部에서 地理學을 전공하고 大學院에서 전문적인 planner 훈련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면 전국적으로 그 數는 약간 많아질 뿐이다.

地理學에 있어서 應用參與에의 相對的 萎縮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첫째, 大學 및 大學院 教育에 문제가 있다고

표 1. 全國地理學科의 應用地理 科目 開設 現況

科 目	學 部(26)	大學院 碩(11), 博(9)
應 用 地 理 學	13개·학과	10개 학과
地 域 開 發 論※	12 "	11 "
應 用 系 科 目	68개 과목	56개 과목
應 用 系 科 目 平 均	2.6 "	5.1 "

註: ()는 地理學科設置 大學數,

※표는 地域計劃, 國土開發, 國土計劃 등 類似 科目名을 포함한다.

가상할 수 있고, 둘째 制度的으로 참여의 길이 폐쇄되어 있음을 그 원인으로 가상할 수 있으며 세계 人力需要와 供給의 不均衡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大學校 地理學科에서 地理學 應用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증거는 <표 1>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應用地理”란 題名의 講座와 “地域開發”이란 題名의 강좌는 全國 26개 大學 地理科 중에 약 50%에 이르고, 大學院의 경우에는 碩·博士 강좌가 있는 11개교는 거의 전부가 開設하고 있다. 그리고 應用系 類似科目, 즉 應用地形學·應用氣候學·都市計劃調·航空寫眞判讀·地域分析·立地分析·環境評價 등의 강좌명은 學部에서는 平均 2.6科目, 大學院에서는 5.1 科目이 개설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大學校 地理教育에서 應用門部를 결코 등한시 했다고 볼 수 없으니 地理學의 應用參與가 현실적으로 萎縮된 것은 다른 原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私見을 부연한다면, 應用講座가 理論에 치우치기 보다는 調査나 計劃의 實際, 즉 技法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地理學科 出身들이 훨씬 더 應用에의 專門性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應用部門에의 制度的 門戶는 어떠한가? 이 점은 地理學科뿐 아니라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出身들에게도 技能士와 技術師의 資格을 얻는 이외에 배출구는 거의 없고, 다만 用役會社에 채용되는 길이 고작이다.

地域 및 國土開發의 증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調査와 計劃業務를 專門的 訓練이 전혀 없는 行政官吏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制度的 모순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제, planner의 需要와 供給에 관해서는 正確한 수를 파악할 수 없으나 中央政府와 地方行政의 調査·計劃業務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면, 결국 需要는 있으되 供給은 막혀 있다는 귀결에 이른다.

地理學의 應用參與는 비단 都市·地域開發 分野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地圖製作을 全擔하는 國立地理院이 엄연히 存在하지만 이러한 중대 業務를 土木·測量職과 一般行政職이 全擔하고 있는 우리의 制度的 모순을 해방후 40여년이나 是正하지 않고 있다. 각종 尺縮의 地圖製作과 修正, 航空寫眞의 利用, 각종 테마地圖의 作成, 地名의 교정, 官撰地誌의 刊行 등을 地理學 專門家 이외에 누가 담당할 수 있단 말인가?

日本の 國土地理院에서는 地理學科 出身을 特採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國立地理院에서는 自體가 短期大學을 운영하여 地圖專門家를 養成하여 채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國立地理院에 地理學科出身이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保安을 이유로 해서 地圖와 航空寫眞의 自由로운 利用마저 봉쇄되어 있는 처지이다.

4. 地方化時代의 地理學(反省과 提言)

主體的 研究方法을 수립해서 바람직한 國土(鄉土)研究에 임하자는 反省은 곧 “살기 좋은 國土를 가꾸자”는 當爲性과 目的性을 바닥에 깔고 있으므로 國土研究에 대한 관심은 學界·官界·實業界·教育界를 種당라한 國民의 關心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근대화로 상징되는 權威主義的 官治行政과 不均衡成長의 길만 달려왔다. 이제는 地方化·多元化·分散化·自律化를 통해 균형있는 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은 地域住民의 自發的 參與와 全國民의 關心, 그리고 地方研究의 深化를 통해서 쉽게 달성된다.

(1) 學界의 反省

地方化時代의 地理學은 大學의 講座에 國土 및 地域을 테마로 하는 學科目的 증설이 요망된다. 全國 25개 大學地理學科의 例를 보면, 모두

가 “韓國地誌”를 개설하고 있으나 大學 4個年을 통해서 고작 1學期 3學點의 의무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都市地理·村落地理·經濟地理·農業地理 등의 科目이 地理學科가 있는 어느 大學이던 거의 共通으로 開設되어 있으나 그것이 韓國의 都市, 韓國의 村落, 韓國의 經濟를 소재로한 내용이 아니며, 또 日淺한 研究蓄積으로 생각할때 講座의 內容을 그렇게 編製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大學院 水準에 있어서는 韓國이 소재가 된 講座·세미나가 必的으로 開設되어야 할 것이다.

歷史, 文化地理講座가 우리의 것을 對象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고, “韓國地理學史”의 獨立된 강좌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古典에 해당하는 地理學者의 思想, 저들이 편찬한 地誌의 性格을 마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올바른 國土研究를 위해서 구상되는 사업으로는 각 대학이 특성있는 地域研究를 進문화하는 일로서 例를 들면, 서울은 首都圈, 慶北은 嶺南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地域研究所의 開發이 요망된다.

地理學의 應用性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學部에서부터 應用地理學講座를 확대하고 地域調査와 計劃의 技法을 증점적으로 훈련하여 planner 育成에 全力을 다할 뿐 아니라 각 대학의 專門人力을 補完하기 위해 대학간의 교환교수 programme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

(2) 當局에의 提言

地方文化의 育成은 地域間的 經濟的·文化的 隔差를 解消하고 國民 相互間的 感情的 調和를 꾀하며 全國이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서 地方自治制의 조속한 실현과 官界의 지원체제가 시급하다.

教育委員會가 주도하는 꽃가꾸기·아침청소 등의 形式的이고 命令下達式 愛鄉運動이 아니라 자기고장의 역사와 지리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保全·開發의 價値를 스스로 더욱더하도록 꾀하는 데에서 愛鄉心이 싹터야 한다. 이런 뜻에서 鄉土誌나 鄉土史研究에 官界의 지원이 요청되며,

적어도 面單位的 文書保管所·鄉土文化院의 운영이 요청된다.

郡誌·邑誌·道誌가 政府의 業績과 地方官廳의 業績이나 P.R하는 畫報的 性格의 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자기고장을 잘 알고 비판할 줄 아는 地方史家 및 地理學者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어야 한다.

鄉土의 地理를 調查하고 鄉土를 開發하자면 전문적인 調查·開發技法의 訓練이 요망되는 바 이것은 각 지방의 中高校 地理教師를 동원할 수도 있다. 저들은 地域 system에 대한 綜合的 觀察力과 地圖製作法, 그리고 地域調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을, 자기가 속하여 있는 地方,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가꾸는 일은 온 國民들의 運動으로 승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制度的 裝置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公務員 採用法에 地理職과 開發職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國民學校 教育부터 國土地理 또는 鄉土地理를 國策科目으로 設定하여 주기를 제한한다. 地域 및 都市計劃이나 國土計劃과 같은 國家行事を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一般行政職이 담당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장차 통일된 國土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北韓의 地理的 實情을 소상하게 診斷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國際的 地位와 國력이 낮은 水準이 아닌 오늘에 있어서도 北韓地理 研究를 위한 자료가 밀폐된 상태라면 결코 발전적 자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教育界에의 提言

돌이켜 보건대, 해방후 우리의 教育行政 만큼 試行錯誤를 거듭한 行政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教育이 거의 美國에서 教育받은 官邊 教育學者들의 자문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OX型 人間이나 主知性人間이 創出된 것도 따지고 보면 美國의 方法의 批判없는 移植·接木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① 理念教育의 再考

國家의 理念이나 目標가 달라지면 教育의 方向이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기존 교과와 내용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지 issue가

있을 때 마다 教科의 新設, 廢止, 또는 時間의 加減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른바 政策·理念科目에 해당하는 國民倫理·國史·教練은 共通必須科目이자 엄청난 時間單位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地理科의 教育機會는 상대적으로 萎縮이 되고 있다. 國土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理念이 어디 있으며, 主體意識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國家가 目標로 하는 理念은 특정교과도 교과이러니와 모든 교과가 그 내용에서 直間接으로 취급해야 理想的 教育이다.

특히, 근자에 와서 教育學 마저 官邊學者들을 앞세워 高等學校 教科에 끼어들려는 計劃은 매우 개탄할 일이다.

② 重要性의 강조와 教科의 獨立

官邊學者들은 中·高等學校를 저들 理論의 試驗場으로 생각하고 기회만 닿으면 자기 이론을 정책에 반영시키려 피한다. 人口問題에 人口教育, 環境問題에 環境教育, 男女間의 性問題에 純潔教育, 최근에는 經濟教育까지 강조하고 있으며, 여론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獨立教科의 割當을 요구하고 나선다. 그러나, “강조해야 된다”와 “독립교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논리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地理教科의 時間이 蠶食되어 왔고, 또 잠식되고 있는 중이다. 이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③ 國土地理教育의 國策化

주체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國史가 共必로 國策科目이 되어 있다면 자기 鄉土나 자기 國土를 사랑하고 가꾸는 精神과 技能을 함양할 수 있는 國土地理도 마땅히 강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自然保全·環境保護를 강화하는 次元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체로 普通教育과 中·高校 教育에서 國家觀 확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教科는 자기나라 말, 자기나라 역사, 자기나라 지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역사가 오랜 國家의 보기이다.

<표 2>는 프랑스의 大學入試 國家考查科目인데, 총 8개 전문계열에서 자연계열 E, F, G, H를 제외하면 모두가 앞에 지적한 通念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 심의회가 개혁의 이념으로 내어 걸

표 2. 프랑스의 大入國家考査科目
(baccalauréat A~H)

系 列	科 目	
文 科	Bac. A Bac. B	哲學, 歷史, 地理, 國語, 希臘語(or 羅典語), 數學 哲學, 歷史, 地理, 國語, 數學, 經濟學(or 外國語)
	Bac. C Bac. D	哲學, 歷史地理, 國語, 外國語, 數學, 物理學(or 化學) 哲學, 歷史地理, 國語, 外國語, 數學, 自然科學
理 工 科	Bac. E Bac. F. G. H	國語, 機械, 數學, 物理, 外國語 즉시 활용할 수 있는 實技技術

고 있는 것은 ① 인본성, ② 민족정체성, ③ 도덕성, ④ 진취성의 4개항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항의 원칙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 ①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교육과 ②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은 國土地理教育의 강화를 더욱 요구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精神教育을 강화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풍요한 國土를 가꿀수 있는 精神教育 내지 技能教育이 아니고서는 主體性 確立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國土야말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

다. 살기 좋은 國土 없이, 그리고 國土(故郷)에 대한 愛情없이 祖上의 얼이나 文化에 사랑이 있을리 없고 미래의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Geopieté(自己 땅에 대한 敬畏感) 또는 Topophilia(場所에 대한 愛情心)의 개념은 곧 場所에 대한 地理的 認識을 표현한 말인데, 이것이 없이는 主體性이고 自矜心이고 기대할 수 없음은 自明하다.

이렇듯 중요한 教育이 國策科目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0여년 사이에 時間單位數도 점차 줄고 있으니 제 5차 교육과정 개편작업에서는 반드시 原來的 重要性을 회복할 수 있도록 文教當局은 특별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

④ 科目相馳教師의 任用中止

地理教科는 社會科目임과 동시에 技術科目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의 地理學은 科學技術의 발달과 함께 그 內容과 研究方法이 크게 변하고 있어서 地理學의 正規教育을 받은 教師가 아니고는 교수에 임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新地理學의 訓練이 전혀 없는 他科目 教師를 地理教師로 任用하는 便法主義 風土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